

## 굿맨의 세계제작 옹호\*

- 굿맨과 쉐플러의 논쟁을 중심으로 -

황 유 경

(관동대학교 교양과)

### 1. 머리말: 예술 인지주의를 위하여

형식주의 경향을 띤 구성주의 인식론 작업을 보이는 굿맨(Nelson Goodman)의 초기 저서 『SA』에서 나타나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성격은 이후 『WW』에서도 두드러진다.<sup>1)</sup> 같은 쟁점들을 덜 형식적으로 다루는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A00169)

1) 본 연구에서 굿맨의 주저는 다음과 같이 약칭된다. Goodman (1951), *The Structure of Appearance*,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SA』; Goodman (1954), *Fact, Fiction, and Foreca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FFF』; Goodman (1968), *Languages of Art*, Indianapolis: Hackett: 『LA』; Goodman (1978), *Ways of Worldmaking*, Indianapolis: Hackett: 『WW』; Goodman (1984), *Of Mind and Other Matter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MM』; Goodman and Elgin (1988),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주제어: 굿맨, 쉐플러, 비실재론, 다원실재론, 세계제작, 회화의 인지적 기능  
N. Goodman, I. Scheffler, irrealism, plurealism, worldmaking, cognitive function of painting

『WW』에서 특히 세계와 세계를 이루는 대상들은 발견되기보다는 만들어진다. 예컨대 어떤 천체들을 개별화하고 같은 종류의 사물들로 분류하는 기호체계(symbol system)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별들을 만든다. 체계들, 곧 굿맨이 말하는 세계-판본들(world-versions)<sup>2)</sup>은 겹친다. 갈라지는 다양한 체계들은 같은 영역을 다룰 수 있다. 만일 겹치는 세계-판본들이 체계 구성상 같은 기초적 요소에 수반한다면 그것들의 차이는 존재론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타당하며 상호 화해할 수 없는 다양한 세계-판본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구가 정지해 있는 판본은 지구가 움직이는 판본과 어긋난다. 전자가 지리학에 적절하다면 후자는 천문학에 적절하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많은 옳은 세계-판본들이 있고 각각은 그 자신의 세계를 규정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그 어느 하나의 세계를 수용하고 다른 세계들을 수용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 굿맨의 결론으로 세계들은 있다면 많이 있다. 체계나 판본 상대적으로만이 어떤 실체와 종류가 존재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판본을 제작하며, 다시 옳은 판본은 그 지칭(refer)하는<sup>3)</sup> 세계를 제작한다고 굿맨은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제작은 엄격한 제약에 종속된다. 그것은 일관성, 정합, 실제(practice)와 선행에 대한 민감함 등이다. 어느 제작이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굿맨은 철학 작업 내내 분류 쟁점에 관심을 가져왔다. 어느 대상이라

Sciences, Indianapolis: Hackett: 『RPOAS』.

- 2) 굿맨에게 “판본”(version)이란 서술이나 회화적 재현처럼 사물들을 “배열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문자나 비문자 “기호망”이다. Catherine Elgin (1984), “Goodman’s Rigorous Relativism”, *Journal of Thought* 19, p. 37.
- 3) “‘기호’(symbol)란 매우 일반적이며 특색 없는 용어로서 [...] 글자, 단어, 텍스트, 회화, 도형, 지도, 모형, 그리고 그 밖의 것을 망라”(LA: xi)할 때, ‘지칭’은 “모든 종류의 기호화, 모든 경우의 나타냄(standing for)을 망라하는 매우 일반적이고 원초적인 용어”(MM: 55; 원문강조)다.

도 무수한 방식들로 분류될 수 있다. 유명론자로서 그는 분류의 어느 체계라도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특권화됨을 거부한다. 한 대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들이 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공유되는 본질이나 자연종에 의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중요한 분류를 가려낼까? 그의 답변은 실용적이다. 범주화의 옳음(rightness)은 맞춤(fitting)과 작용(working)의 문제다. 즉 옳은 범주는 다른 인지적 개입과 맞으며, 인지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작용한다. 범주체계는 인지적 목적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잠시 부연하자. 뒤에서 다루게 될 굿맨의 비실재론(irrealism)에서 사물들의 질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밖에 있지 않고 소여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범주의 견지에서 사물을 서술하며 범주는 우리가 고안한 체계에 속한다. 그런 체계는 내적으로 정합해야 할뿐만 아니라 마침 현재 우리가 지니게 된 기본적으로 유지 가능한 독립된 개입들과 정합해야 한다. 이것이 ‘맞음’이다. 나아가 인지적 효율성 관점에서 현재 채용되는 고려들은 점차 수정되거나 확대된다. 그러면 새로운 체계는 인지적 목표를 촉진하게 된다. 이것이 ‘작용’이다.

세계는 제작되지 않고 우리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꾸준히 굿맨에 반론을 펴온 중심 인물이 쉐플러(Israel Scheffler)다. 본 연구는 먼저 굿맨과 쉐플러의 긴 논쟁을 다루며 굿맨을 옹호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지지하는 굿맨의 예술 인지주의에서 예술도 세계제작에 참여하는 인지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필자는 굿맨의 세계제작 구상을 예술 가운데 회화에 적용하여 회화가 세계제작에 참여하는 면모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의 예술 인지주의 옹호의 일환이 될 것이다.

## 2. 굿맨의 세계제작 옹호

### 2.1. 굿맨과 쉐플러의 논쟁

세계제작이라는 굿맨 철학의 근간이 되는 논제는 그 특이한 성격상 적지 않은 반향과 논란을 일으켜왔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1980년에 시작되어 1990년대 말까지 주고받은 굿맨과 쉐플러의 논전이다.

흔히 인용되는 굿맨에 대한 쉐플러의 반론의 논점은 판본을 제작하더라도 그 대상도 제작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sup>4)</sup>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대상에 대한 지식을 이룬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한 우리는 물론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떨어져서 대상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쉐플러에 의하면, 이로부터 우리가 대상을 만든다는 것이 **따르지는 않는다.**<sup>5)</sup> 오히려 대상은 어떻든 그 자체로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굿맨의 『WW』에서 우리는 ‘별’이라는 말을 만듦으로써 별을 만든다. 그러나 쉐플러는 그 말이 생기기 전에 별은 이미 존재하였다고 반대한다. 상식에 더 가까운 이 발상에서 판본을 구성하기 이전에 판본의 대상, 그것도 우리보다 선행하여 존재해온 대상은 어떻든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굿맨이 수여(given)를 거부하며 개념과 범주의 “조직화 양태들이 [...] ‘세계 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하나의 세계로 구축”(WW: 12-14; 원문강조)된다고 보아 개념틀이나 체계의 다수성을 허용하는 데 대해 쉐플러는

---

4) I. Scheffler(1980), “The Wonderful Worlds of Goodman”, *Synthese* 45 참조.

5) 이는 굿맨의 입장과 유사한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에 대한 필드(H. Field)의 반대와 유사하다. H. Putnam(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p. 52, 54; H. Field(1982), “Realism and Relativism”, *Journal of Philosophy* 79, pp. 555-557.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위와 같은 논지의 반론을 통해 굿맨에게 보이는 세계제작의 두 가지 방식, 곧 판본적인 세계제작과 대상적인 세계제작 가운데 후자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 쉘플러는 굿맨이 사용하는 ‘세계’가 때로는 그가 부르는 옳은 세계 판본에 적용되고 때로는 그런 판본이 지칭하는 사물에 적용되며 따라서 애매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가 세계를 만든다는 굿맨의 주장이 후자인 세계들의 “대상적” 해석에 대해서는 그르다고 주장한다. 굳이 판본을 만듦으로써 세계를 만든다고 말한다면, 이는 당연히 “전적으로 수사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쉘플러에 답변하는 자리<sup>6)</sup>에서, 굿맨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과학수단으로”, “정신으로” 그리고 “축어적인 의미로” 하나의 별을 “그 부분들을 모우고 그 경계들을 구획하여”(MM: 42) 만든다. 그러면 이처럼 판본이 별을 만든다면 어떻게 별은 모든 판본들 이전에 영겁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별이 “별을 그 자신보다 한결 더 이르게 자신의 시공 속에 두는 판본에 의해 제작되기”(MM: 36)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별을 포함하는 시공도 만들어진다.

굿맨은 『WW』에서 자신이 ‘세계’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또 애매하게 사용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판본적 해석과 대상적 해석은 상충하더라도 동등하게 옳고 종종 교환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별에 대해 말하는 판본은 그 자체 밝거나 멀리 있지 않으며, 별 또한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거기에 별이 있다’는 진술이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소하게 같은 것이 된다. 굿맨은 별의 어느 특징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가 묻고, 그것이 어떻게 명료하게 담론에 의존하는 특징과 다른지 말하라고 쉘플러에게 도전한다(MM: 41-42). 별을 서술하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고 담론에 의존하지만, “그렇

6) N. Goodman(1980), “On Starmaking”, *Synthese* 45, pp. 211-215 (MM, 39-44에 재수록됨).

다고 ‘별’이라는 단어가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다. 그것의 담론 의존성은 우리가 별이 있다는 것을 일어나게 한다는, [...] 별을 만든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별이 그 자체 담론에 의존함을 함축하지 않는다”<sup>7)</sup>는 것이 쉐플러의 답변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다만 과학도식을 만들어 시공간적 서술을 형성할 뿐이다. 별이나 북두칠성을 만들지 않았듯이 시공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sup>8)</sup> 다른 사례로 “파스퇴르도 세균이론의 그의 판본도 그가 가정할 박테리아를 만들지 않았다.”(I. Scheffler 1996a: 163)

쉐플러는 굿맨 자신도 『LA』에서 “비록 누구도 어느 회화를 서술하는데 ‘슬프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는 그 회화에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회화를 슬프다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그 회화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LA: 88)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병행하여 비록 누구도 무엇인가를 서술하는데 ‘별’ 용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는 그 무엇인가에 적용될 것이며, 무엇인가를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그것을 별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굿맨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이러저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으로 명명됨을 요청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이 이러저러한 것과 다른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 판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부호 아래 속함을 요청한다(필자가 보기에 이는 모두에서 언급하였

7) I. Scheffler(1996), “Reply to Goodman”, reprinted in Peter J. McCormick, ed., *Starmaking: realism, Anti-Realism, and Irrrealism*, Cnabridge, Mass.: MIT Press, p. 163; 원문강조 이 글은 굿맨의 “On Starmaking”에 대한 반박으로 애초 Scheffler (1986), *Inquiries*, Indianapolis: Hackett, pp. 82-86에 게재되었다.

8) I. Scheffler, *Ibid*, p. 164. 시겔(Harvey Siegel)도 시간이건 다른 대상이건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그 개념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굿맨에 반대한다. 요컨대 그는 대상적 세계제작에 반대하며 판본제작의 구성주의 철학이 실재론과 양립 가능성을 보이코자 한다. 그는 “개념들의 상대성”이 실재론적인 하나의 실세계의 “객관적인 특성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arvey Siegel(1984), “Relativism, Realism, and Rightness: Notes on Goodmanian Worldmaking”, *Journal of Thought* 19, pp. 19-21.

듯이 사물들의 분류 쟁점이 굿맨 철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치 않다. 부호나 범주로 사물들을 분류하며 그 유사성이나 차이를 가리는 것이 인지적으로 중요한 통찰을 가져온다. 그러면 회화는 슬프다고 불리지 않고 슬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이 별자리를 만들지 않고 ‘별자리’라는 일반적인 용어 아래 별들의 어떤 배치를 다른 배치와 구분한 판본이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굿맨은 말한다. 별 역시 ‘별’이라는 일반명사 아래 입자들의 어떤 집적을 다른 것들과 구분한 판본에 의해 별로 만들어졌다.<sup>9)</sup>

굿맨의 입장에서 세계제작에 대한 쉘플러의 비판은 세계제작을 기호 과정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손으로건 정신으로건 혹은 기호로건 별을 만들지 않았다고 쉘플러는 주장한다. 굿맨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판본들을 만들고 옳은 판본들이 세계들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판본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들거나 혹은 누구도 만들지 않은) 사물들이 그것들을 옳게 만든다”는 것이다(I. Scheffler 1996a: 164).

쉘플러는 굿맨이 『SA』에서 설명하는 종류의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를 논박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세계들이나 세계제작의 이야기는 없다. 다만 철학화 이전 주제에 대한 적절하지만 갈등적인 체계화들이 있을 뿐이다. 쉘플러는 이런 상대주의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는 애초 ‘개념도식들(conceptual schemes)의 다수성’에 관해 호의를 보인다. 그것은 대상적 세계제작의 거부와 일관한다. 그는 “많은 다른 세계-판본들이 단일 기초로의 환원가능성의 여하한 필요나 가정 없이 독립한 관심과 중요성”(WW: 4)을 지닌다는 굿맨에 동의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비판하는 것은 뒤에 『WW』에서 나타난 발상 가운데 다만 ‘판본적으로’가 아니라 ‘대상적

9) N. Goodman (1993), “On Some Worldly Worries”, *Synthese* 95, p. 12, n. 4; p. 11 (Peter McCormick, *op. cit.*, pp. 165-168에 재수록됨).

으로' 해석하는 세계들과 그 제작 발상이다. '세계들'로 판본들을 의미한다면, 세계들을 제작한다는 생각에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세계들'로 참인 판본들에 부합하는 ("물질, 반(反)물질, 정신, 에너지, 혹은 그 밖의 것"(WW: 96)을 포함하여) 사물들을 의미한다면 세계들을 만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 쉘플러는 "우리는 판본들을 만들고 그러나 그 판본들을 옮겨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I. Scheffler 1996b:174)고 단언한다.

굿맨과 쉘플러의 논전은 다시 이어진다. 굿맨 식으로 보면 자연이 북두칠성을 만들었다 해도 자연이 그것을 북두칠성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즉 "그것은 판본이 선정하고 그렇게 불러 북두칠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도록 거기에 있던 것은 바로 특정 별자리다. 자연이 그것을 별자리로 만들지 않고, 그것은 "별자리"라는 일반적인 용어 아래 별들의 어떤 배치를 다른 배치와 구분한 판본에 의해 별자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도 자연이 만들었지만 자연이 그것들을 별로 만든 것은 아니다. 즉 "그것들은 하늘에서 입자들의 어떤 집적들 [...] '별'이라는 일반명사 아래 다른 것들과 구분한 판본에 의해 별들로 만들어졌다." 다시 그러면 그 입자들은 어떠한가? 이렇게 논법상 퇴행이 이어진다. 결국 이런 논변은 판본이 없으면 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별이 별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굿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별로서가 아닌 것으로서 별은, 움직이는 것으로서가 아닌 것으로서 그리고 고정된 것으로서가 아닌 것으로서 별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판본 없이 별은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되지도 않은, 이러저러한 것으로서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도 아닌, 어느 것이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N. Goodman 1993: 11).



그러나 쉐플러는 이 인용을 자기 식으로 재구성한다.

아직 “별”이라고 부르지 않는 별, 아직 “움직이는 것으로서” 혹은 “고정된 것으로” 서술할 수 있지 않은 별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어느 것을 별로서 서술할 수 있는 언어 없이 우리는 별을 “별”이라고 부를 수 없다. 어느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서 혹은 고정된 것으로서 서술하는 언어 없이 우리는 별을 “움직이는 것으로서” 혹은 “고정된 것으로서” 서술할 수 없다(I. Scheffler 1996b: 175).

쉐플러가 보기에 굿맨에게 우리가 채용한 세계판본이 북두칠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판본이 ‘북두칠성’이라는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용어의 포함은 우리의 판본이 실제로 북두칠성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채용된 판본 안에서 ‘돈키호테’라는 용어의 포함이 그 판본이 실제로 돈키호테를 만들었음을 유사하게 내포하지는 않는다. ‘돈키호테’는 공지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판본은 공(null)이 아닌 용어들과 함께 공인 용어들을 포함한다. 돈키호테 판본은 거짓이고 북두칠성 판본은 참이다. 다시 그렇다면 우리의 판본이 ‘북두칠성’ 용어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북두칠성’의 공이 아닌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용어가 공이 아님은 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북두칠성 판본은 북두칠성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것, 즉 그것이 지시되도록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의 판본이 북두칠성을 만들지 않았다고 쉐플러는 주장한다(I. Scheffler 1996b:175-176).

굿맨은 이에 다시 응수한다(N. Goodman 1996:209-213). 우선 판본 내 모든 술어들이 다 세계제작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판본이 어느 것에 관한 것일 때 판본이 그 어느 것에 귀속하는 술어를 가려내야 한다. 다만 판본 자체에 속하는 술어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굿맨에게도 어느

판본은 거짓이므로 세계를 제작하지 않는다. 모든 판본들이 다 현실세계를 제작하지는 않는다.

굿맨은 어떻게 판본이 자체보다 오래 전에 존재한 것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재고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녹색 잔디의 판본이 녹색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세계에 귀속된 특징이 그 판본의 특징임을 요청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굿맨은 묻는다. “그러면 왜 과거 시간 소재를 한 사태에 귀속하는 현재의 판본에 의해 혼란을 겪는가?”(N. Goodman 1996: 213) 한 사례로, 현재 밤하늘에 어느 천체가 발하고 있는 빛을 기술하는 판본 A와 최근 천문학 교과서에서 그 천체의 운동, 크기 등을 기술하는 판본 B를 가정하자. B는 그 천체가 백만 년 전에 형성되어 몇 세기 뒤에 파괴되었고 거기서 오는 빛이 앞으로 언제까지든 지구에 계속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판본 B는 현재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 천체의 생명을 먼 과거에 두고, A에서 그것은 여전히 빛난다. B는 시공에 걸쳐 사물들을 분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공을 만든다.

그러나 쉘플러는 다시 자신이 위의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판본이 그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함으로써 혼란을 겪는다고 응수한다. 또한 판본이 시공에 사물들을 분배하며 그럼으로써 그 시공을 만든다는 굿맨에 대해, 시공에 사물들을 분배하는 판본이란 오히려 그 사물들이 시공에 분배된다고 주장하는 판본이라고 쉘플러는 응수한다. 판본이 그 사물들이 그렇게 분배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판본으로 어떤 오래 된 별이 오래 전에 붕괴했다는 것을, 그 판본이 그 별이나 그 별의 붕괴를 만든다는 것 없이, 지금 옳게 단언할 수”(I. Scheffler 1997: 209-210; 원문강조) 있다고 쉘플러는 말한다.

지금까지 굿맨과 쉘플러의 논쟁을 조명해보았다. 쉘플러는 굿맨과 별인 오랜 논쟁의 귀결로서, 굿맨 사후 피어스(C. S. Peirce)로 대변되는 일원주의적 실재론과 굿맨의 다원주의적 비실재론(irrealism)에 반대하며 이

르바 ‘다원실재론’(pluralism)을 주창한다(I. Scheffler 2000: 161-173). 그는 존재론적 실재론을 반박하지 않고 굿맨의 다원주의를 보존하려고 한다. 일원주의적 실재론에서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대상들의 하나의 세계를 단언하고 탐구를 이 하나의 세계로 수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셰플러는 경제학, 지질학, 정신의학, 언어학 등의 연구가 하나의 궁극적인 이론이나 개념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며 이 실재론에 반대한다. 한편 다원주의적 비실재론에서는 “하나의 세계의 가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많은 옳은 세계-판본들을 구성함으로써 세계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원실재론은 상호 독립하며 우리로부터도 독립한 다른 세계들을 인정한다. 즉 “우리의 제작으로부터 독립하고 탐구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들의 존재를 지지하지만, 이런 대상들의 탐구가 유일한 세계-판본으로 수렴함을 거부한다.”(I. Scheffler 2000: 161)<sup>10)</sup>

굿맨은 세계가 하나만 있다는 것을 공격한다. 차라리 우리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판본들을 만듦으로써 세계들을 만든다. 이렇게 그는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실재론을 거부한다. 실재론적 사고를 지니려면 하나의 세계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즉 절대주의자로서 어떠한 공통된 토대로의 궁극적인 환원가능성을 믿는 편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굿맨의 시사다. 그의 기본적 가정은 논리상 다원주의자는 실재론자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재론자는 일원주의자이어야 하며 일원주의의 거부는 곧 실재론 거부다. 그는 실재론을 절대주의라 부르며 주로 물리학이 모든 과학이나 지식의 궁극적인 환원 토대라는 주장을 염두에 둔다. 세계들이 판본들로

10) 참고로, 굿맨은 자신을 관념론자로 보는 퍼트남에 반대한다. “나는 세계들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갈등적인 옳은 판본들은, 세계가 있다면, 다른 세계들에 속한다고 말하였다...이는 관념론 아닌 비실재론 기미를 더 띠다고 나는 제시한다... 나는 왜 세계들이 없고 판본들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관념론적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문자건 회화건 판본을 정신적인 것으로서 생각하거나 관념이나 이데아인 것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관념이나 이데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기호로서 기능을 하는 대상물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다.”(N. Goodman, 1996: 204).

부터 독립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공통된 토대로 환원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다수의 세계들이 있게 되며 각 세계는 어느 옳은 판본과 같거나 어느 옳은 판본의 산물이다. 환원에 반대하는 굿맨의 논증이 그의 다원주의를 지지한다.

만일 실재론이 일원주의를 함축한다는 굿맨의 가정이 옳지 않다면, 하나의 세계 관념을 거부하는 점에서 굿맨에 동의하고 상응하는 판본들로부터 독립해 있는 다수의 세계들을 인정하는 점에서 굿맨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의 여지가 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쉐플러는 굿맨에 반대하며 다원주의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굿맨과 수차례 논쟁을 벌인 이후 쉐플러는 굿맨의 실재론 배제 논변을 분석하고 요약하며 자신의 다원실재론을 옹호한다.<sup>11)</sup> 먼저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의 필요불가결성에서 유래하는 논변이 있다. 준거틀에게서 떨어져서 세계가 어떠한가 말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굿맨의 비실재론과 쉐플러의 다원실재론은 일치한다. 여기서 문제는 없다.

다음 논증에서 굿맨은 서술되거나 묘사되지 않은 세계와 비교하여 판본을 검증할 수 없으며, 그런 세계란 모든 옳은 판본들이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려도 좋은 세계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모든 옳은 판본들이 공통으로 지칭하는 세계, 곧 고유세계(the world)에 대한 굿맨의 비판은 그들 판본이 각기 지칭하는 독립한 세계들(worlds)을 인정하는 것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쉐플러는 생각한다. 여기서도 쉐플러의 생각은 굿맨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마지막 논변에 있다. 개념 없이 지각이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굿맨의 기본 태도다. “내용은 형식이 없다면 사라진다. 세계 없이 단어를 가질 수 있지만 단어나 다른 기호 없이 세계를 가질 수 없다”(WW:

11) I. Scheffler, *Ibid.*, pp. 167-170; I. Scheffler (2001), “My Quarrels with Nelson Goodma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2, pp. 674-675 참조.

6. WW: 116-120 참조)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쉐플러는 개념 없이 지각이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단어 없이 세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각과 개념의 토대 위에서, 언어에 앞서 세계들을 가정하고 이로써 우리의 제작으로부터 독립하여 언어 자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화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화되지 않은 소어나 속성 없는 기층의 이야기는 자멸적이다. 이야기가 구조를 부과하고 개념화하고 속성을 귀속하기 때문이다”(WW: 6)라고 굿맨은 말한다. 그러나 쉐플러는 다시 반박한다. 우리가 지금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태초 나무는 분명 생성되고 무성하기 위해 이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단어의 산물도 아닌 무엇을 단어로 서술하는 것은 자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굿맨과 쉐플러의 공방으로 다시 돌아간다.<sup>12)</sup>

## 2.2. 굿맨 옹호

과인과 화이트와 더불어 굿맨이 전통적인 철학의 근본 가정인 분석성, 필연성, 선형성을 거부한 것은 1950년대였다. 이 입장에서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 혹은 자연종과 인공종의 구분은 없다. 주지하듯 굿맨은 최초로 술어의 투사가능성, 즉 어느 술어가 귀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귀납문제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는 투사가능 여부 판단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귀납이 습관, 고착 문제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귀납에 대한 굿맨의 언급은 실제(practice)나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 에메랄드 색깔에 대해 우리가 ‘그루’(grue)보다는 ‘그린’(green)을 선호한다면, 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자연적인 것을

12) 가장 최근의 저서에서 쉐플러는 자신과 굿맨의 오랜 논전을 정리한다. Scheffler (2009), *Worlds of Truth: A Philosophical Knowledge*, Oxford: Wiley-Black, pp. 59-61, 66-72.

지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귀납실제와 더 잘 맞기 때문이다 (FFF: 3장). 그래서 굿맨의 관점에서 자연종과 인공종의 구분에 호소하는 것은 선결 문제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부연해보자. 에메랄드 “x는 그루다”는 “x는 미래 시간  $t$  이전에 조사되어 그린인 것으로 발견되거나, 그렇게 조사되지 않고 블루(blue)다”로 정의된다. 그러면 우리의 증거집단 안에서 모든 에메랄드는 사실상 그루다. 그 증거는 ‘모든 에메랄드는 그린이다’와도 ‘모든 에메랄드는 그루다’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에메랄드가 그루라고 추론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미래 에메랄드들이 그린이기를 확신하며 예상한다. 무엇이 ‘그루’보다는 ‘그린’의 투사를 지지하는가?

‘그린’ 견지에서 ‘그루’를 정의하므로 ‘그린’이 더 원초적이라고 보는가? 그러나 한 용어가 원초인지 정의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의존한다. 예컨대 ‘블루’와 ‘그린’을 원초로 취할 때, “x는 블린(bleen)이다”는 “x는 미래시간  $t$  이전에 조사되어 블루인 것으로 발견되거나 혹은 그렇게 검토되지 않고 그린이다”로 정의된다. “x는 그린이다”의 정의도 대등하다. 원초임은 술어의 이론 중립적인 특성이 아니다. ‘그린’도 ‘그루’도 각각 다른 것보다 본래적으로 더 원초적이지는 않다.

다시, ‘그루’의 정의에 특정 시간  $t$ 가 등장하므로, 그것은 법칙적인 (lawlike) 일반화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귀납에 부적절하다고 보는가? ‘그루’가 위치적(positional)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굿맨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린’으로 시작하면 ‘그루’는  $t$ 에 대한 언급을 요청하며, ‘그루’로 시작한다면 ‘그린’은  $t$ 에 대한 언급을 요청한다. 원초임과 같이 위치성은 이론에 의존한다. 만일 위치성이 법칙적임을 배제한다면, 일반화가 법칙적인지 여부도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의존한다. 일반화가 법칙적임은 그것이 속하는 이론 구조의 인공물이다.

법칙적인 일반화와 우연적인 일반화의 구분이 자연종과 인공종의 구

분에 연결된다. ‘그린’이 ‘그루’보다 더 자연적이라는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투사가능성의 차이를 전제하지 않는 자연성의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굿맨에 의하면, 우리가 ‘그루’가 아니라 ‘그린’을 투사하는 것은 다만 후자가 한결 더 낮게 고착(entrenched)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을 반영하지 않는다.<sup>13)</sup>

자연종과 인공종 구분의 포기과 함께 필자는 속성<sup>14)</sup>이 우리가 어떻게 범주와 이론을 마련하는가에 의존한다고 보고자 한다. 우리가 어느 속성의 사례로 고려하는 것은 과학이론의 발전과 귀납실제의 개선과 함께 변할 수 있다. 한 집단은 어떤 원리와 제안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분될 때만이 비로소 과학을 위한 적절한 종류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 자연적이라고 잘못 불리는”(MM: 36, n. 4) 것이다.

쉬와르츠(Robert Schwartz)도 인공종과 자연종 간의 형이상학적인 구분을 포기한다면 속성이 이론이나 조직화 도식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sup>15)</sup> 그는 자연종에 대한 실재론적 설명을 거부하고 속성 이론이 그 속성의 외연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며 세계제작 관념이 그럴듯함을 주장한다. 그는 별에 대한 이론 구성이라는 배경 없이 개개 별이 천체의 명확한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 명백하지 않다고 본다. 각 명칭이 창공의 별 부분들만을 다 가리키기 위해서는 별들의 시공간적 차원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 어느 종류

13) C. Elgin(2001), “The Legacy of Nelson Goodma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2, pp. 688-689.

14) 굿맨은 유명론자로서 통상적인 유명론 입장을 따라 ‘속성’(property)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지만(MM, 59 n), 엄밀히 보아 그의 유명론은 집합의 거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속성은 (술어를 포함하는) 부호(label)로 번역된다.

15) R. Schwartz(2000), “Starting from Scratch: Making Worlds”, *Erkenntnis* 52, pp. 151-159.  
R. Schwartz(1986), “I’m Going to Make You a Star”,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1, pp. 427-439 참조.

의 얼마나 되는 물질이 어느 시공간적 간격에 분배되어 별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제작은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거대한 양의 기체를 압축한 것은 아니며, 이런 의미라면 우리가 태양을 만들지는 않았다. 우리는 개념과 범주를 형성함으로써 무언가에 질서를 부여한다. ‘별’이라는 부호에 속하는 각 대상은 무수한 특징을 드러내며 그 대상들 집단의 어떤 공통성이 각각을 별로 만든다. 여하한 것의 어느 집단에도 공통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별이라는 종류가 되기 위해 공유하는 어느 적절한 특징은 별 안에서 발견되기보다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천문학적으로 우리의 서술적 도식이 특징에 따라 중요하다고 보거나 경시하거나 한다. 이렇게 별이라는 것의 속성은 언어 부호를 다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쉬와르츠는 주장한다. 이런 의미로 별은 우리가 만든다.

필자는 굿맨의 규약/사실(convention/fact), 혹은 도식/내용(scheme/content) 이분법 거부 역시 고정된 속성을 갖춘 독립한 세계들이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사실’과 ‘내용’은 서로 교환 가능하다. RPOAS: 94). 규약은 사실과 대조되며, 선택적이거나 인공적인 것으로서 규약적임은 필수적이거나 사실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흔히 생각된다. 그러나 굿맨에 의하면, 사실과 규약 간에 확고한 구분은 없다. 오히려 사실은 규약적이며 사실과 규약의 구분도 실제와 습관에 의존하며 규약적이지만 그 구분은 자주 변해도 자의적이지는 않다(RPOAS: 93-100. WW: 119; MM: 43 참조).

굿맨의 논변을 잠시 부연하자. 예컨대 달로 하여금 회전하게 하거나 정지해 있게 하는 것은 우리다. 이렇게 운동은 선택적이며(즉 필수적이지 아니며) 따라서 규약이다. 그러면 달의 크기와 형체도 규약문제다. 그것들이 규약문제인 운동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사실이지 태양, 달 등의 견지에서 어느 서술도 다른 개념들의 견지에서 대안적인



적절한 판본들이 있으므로 규약적이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이들 친숙한 단위로의 조직화는 별들로 별자리를 조직하는 것과 같이 선택적이다. 이렇게 모든 사실은 규약으로, 모든 자연은 고인(artifice)으로 증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서술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면, 두 개의 진술은 같은 대상에 관한 것이며 어떤 관찰이나 원리 등에 대해 일치하며 같은 사실을 서술한다. 그러나 이런 대상이나 관찰이나 원리도 그 자체 규약적이며 이 사실은 그 서술의 산물이다. 두 판본은 어느 용어들을 공유하고 같거나 유사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서로 번역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같은 사실들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모든 규약은 사실에 의존하며 모든 사실은 규약이다(RPOAS: 94-95).

여기서 모든 사실이 규약이고 모든 규약이 사실이어도 그 구분은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물체가 운동하고 또 정지해 있어도 “지구에 상대적으로 운동한다”와 “지구에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는 모든 같은 사물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실적”과 “규약적”이 동외연이며 모든 판본들에 적용되어도 “판본 V에 상대적으로 사실적”과 “판본 V에 상대적으로 규약적”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규약과 사실의 구분은 그 자체 규약적이다**]” (RPOAS: 95-96; 원문강조). ‘정지’와 ‘운동’이 천체들을 집단들로 갈라놓지 않듯이, ‘규약’과 ‘사실’도 진술들이나 판본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판본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관계적 용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 용어는 범주적 용어로 바뀌기도 한다. 어떤 진술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면 다른 진술들이 필수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된다. 사실과 규약 간에 일시적인 구분은 있는 것이다. 이는 자의적이지 않고 편의나 목적 등에 따르는 입장에 의존한다. 통상 우리는 비행기 운행을 서술할 때 지구를 정지한 것으로 보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동작을 서술할 때 비행기를 정지한 것으로 본다.

이 맥락에서 필자는 도식이나 판본의 선정이 내용이나 세계로 간주되

는 것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실재는 고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설정하는 기준이 세계 안에서 어떤 대상이 확인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기준이 세계로서 존재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식 혹은 판본과 내용 혹은 세계의 고정된 구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선정한 기준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런 구분이 없다면 기준의 선정은 대상이나 속성을 만들어낸다.

실재론자에게 저 밑에 놓여 있는 실재가 세계구성에 제약을 가한다면, 굿맨에게 그런 실재란 있다 해도 아무런 중요한 특징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제약을 가할 수 없다. 굿맨이 강조하거니와 세계제작이란 언제나 기성물을 전제하는 재제작이다. 새로운 세계의 제작을 제약하는 것은 어떤 술어의 고착, 기존 세계 판본 등이다. 옳은 판본들이 세계들을 만들 때 세계가 있다면 많은 세계들이 있다고 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은유로 보이지만, 이제 굿맨을 따라 축어적인 의미로 그러하다.

쉬와르츠를 따라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를테면 케이크 만들기가 그러하듯 세계제작에서 우리가 문장을 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케이크가 온스 당 120칼로리를 함유한다”라는 문장의 참이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독립하며 객관적으로 그 케이크에 의존하듯이 인지적 제작도 그러하다. 세계제작 주장은 “P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P’는 참이다”와 일치한다. 이렇게 세계제작 관념은 진리의 주관주의 이설을 수반하지 않는다.<sup>16)</sup> a가 가장 작은 북두칠성 별이라거나 c가 아니라 b와 같은 별자리에 속한다는 말은 하늘에 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16) R. Schwartz, “Starting from Scratch: Making Worlds”, p. 152.

### 3. 회화를 통한 세계제작

#### 3.1. 지칭기호로서 회화

앞에서 우리는 옳은 판본을 만듦으로써 판본이 지칭하는 세계도 만든다고 했다. 굿맨 철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문자 판본도 세계를 제작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제 예술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겠거니와 지칭의 여러 양태는 과학, 예술, 일상을 포섭한다. 필자는 회화의 사례로 회화가 하나의 판본으로서 세계를 지칭하며 제작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예술이 지칭하며 인지적으로 기능을 할 때 ‘인지’(cognition)는 문자언어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게 상상, 지각, 분류, 패턴감지, 감정 등을 수용하도록 확대된다. 지면관계로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종래의 ‘지식’(knowledge) 또한 ‘이해’(understanding)로 확대된다.<sup>17)</sup> 우리는 사실뿐만 아니라 행위, 정감, 가치, 허구, 회화, 음악, 은유 등을 이해한다. 굿맨의 견해에서 인지적 노력은 이해를 증진하는 일이다. 굿맨이 개념화하는 대로 미학은 인식론의 한 분과다. 예술작품은 과학이나 일상담화처럼 기호로 이루어지며, 미적 태도란 미의 수동적인 관조가 아니고 기호를 능동적으로 해석해내는 태도다. 기호이해는 그 기호가 속한 기호체계의 이해를 요한다. 『LA』는 예술 기호체계들의 분류법을 개발하고 통사론적, 의미론적 구조를 갖춘 기호들의 힘과 한계를 논의한다.

굿맨의 구성주의는 ‘지시’(denotation)와 ‘예시’(exemplification)라는 두

17) 황유경(2005), 「지식으로부터 이해로의 이행: 정서·예시·허구·은유의 인지적 기능 (I)」, 『美學』 42집, 한국미학회, 244-259쪽 참조. 지식에서 이해로의 이행과 맞물려 있는 것이 ‘진리’(truth)에서 ‘옳음’(rightness)으로의 이행이다. 진리는 결함을 안고 있으며 옳음에 비해 협소하다. 옳음은 비문자기호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기호들에 적용된다. 본 연구 모두에서 ‘옳음’은 맞춤(fit)과 작용(working)의 문제라 했다. 예술은 여러 양태로 지칭하며 참이 아니라 옳다. 『WW』, 1장, 7장; 『RPOAS』, 1장, 10장.

개의 의미론적 원초(primitive)를 지칭양태로 설정하며 ‘재현’(representation)과 ‘표현’(expression)을 각각 구성한다. 요컨대 “[술어, 회화, 도표, 악보 등] 부호(label)로부터 그 부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향해” 가는 것이 지시라면, 예시는 “부호가 적용되는 무엇으로부터 그 부호로 되돌아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MM: 59. LA: 1-2장 참조).

지시는 단어와 대상 간의 친숙한 관계다. 이름은 그 담지자를 지시하고 술어는 그 외연의 성원들을 지시한다. 많은 이론가들과 달리 굿맨은 회화도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름과 술어가 그 대상에 맺는 것과 같은 관계를 회화는 그 대상과 맺기 때문이다. 초상화는 그 소재를 지시한다. 예컨대 조류 도감에서의 휘파람새 그림과 같은 일반적인 회화는 그것이 적용되는 휘파람새들을 지시한다. 이렇게 회화는 대상이나 사태를 재현한다.

허구적 기호는 지시를 결여한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 그림은 지시하지 않는다. 이런 기호의 해석은 어느 용어가 그것을 지시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 기호가 ‘산타클로스 재현’ 같은 용어의 사례임을 깨달음으로써 그 기호를 이해한다. 상식적으로는 ‘산타클로스 그림’이 그 카드를 지시한다고 알기 위해 먼저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산타클로스를 지시한다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굿맨은 이를 거부한다. 우리는 산타클로스 그림을 그 지칭체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한다. 이는 회화를 그것이 묘사하는 풍경과 비교하지 않고 풍경화로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

비구상회화는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시로 지칭한다. 기호는 그 자신이 소유하는 특징 가운데 어느 것을 지적하고 그림으로써 그것을 지칭하며 인식적 접근을 마련한다. 이것이 예시다. 상업물감 견본은 그 색채나 광택을 예시하며, 폴록(J. Pollock)의 추상표현주의 회화는 물감의 점성을 예시한다.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형식적’ 속성인 통일성이나 균형

도 예시되는 속성이 된다.

지시도 예시도 축어적일 필요가 없다. 특히 예술에서 은유가 중요하다. 우리는 범주도식을 고안함으로써 사물들을 집단화한다. 여기서 은유는 축어적 도식이 가려내지 못하는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적 접근을 제공한다. 예컨대 ‘견고하게 근거해 있다’는 어느 이론을 축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지시한다. 예시도 유사하다. 괴델의 증명은 강력하지만 증명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축어적으로 힘을 예시할 수 없듯이, 회화는 감각을 지닐 수 없는 것이어서 고통을 예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특징을 은유적으로 소유하고 예시한다. 은유적 지시와 예시는 실재하는 지시요 예시다.

예술에 특유한 예시의 한 양태가 바로 표현이다. 즉 표현은 은유적 예시로 구성된다. 회화는 예컨대 은유적으로 말해 슬픈 어두운 톤과 무거운 선을 예시하며 슬픔을 지칭한다면 슬픔을 표현한다(LA: 85-95). 같은 작품이라도 그 미적 기능과 무관한 다른 특징을 은유적으로 예시할지 모른다. 즐거움을 표현하는 어느 회화는 투자로 고려될 때 노다지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회화는 그 특징을 표현하지 않는다.<sup>18)</sup>

로빈슨(J. Robinson)은 굿맨을 따라 예술작품이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그는 예술가가 재현하는 세계 내 어떤 성질의 표현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표현되는 것은 세계 자체의 성질이나 국면이다. 즉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의 표현이라는 양태의 표현이다. 예컨대 놀데(E. Nolde)의 춤을 묘사하는 회화는 춤의 역동성과 관능성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춤이 예술가가 재현하는 세계 내 사물일 때,

18) 지칭개념으로서 ‘예시’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 황유경(2006), 「지식으로부터 이해로의 이행: 정서·예시·허구·은유의 인지적 기능 (III)」, 『美學』 45집, 한국미학회, 204-220쪽 참조.

19) J. Robinson(1979), “Expressing the Way the World Is: Expression as Referenc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3, pp. 29-44.

표현되는 것은 춤의 성질이다. 물론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은 비대상적으로도 표현된다. 칸딘스키의 비구상 회화는 어떤 움직임에 ‘관한’ 작품으로 그것을 공표하고 생생하게 만든다. 역동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표현되는 것이 세계 내 어느 특정 사물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순한 속성이어도 세계 내에 귀속될 수 있다.

지시와 예시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다. 예컨대 피카소의 스타인 초상화는 스타인을 지시하고 기념비적임을 예시한다. 지시와 예시가 함께 작용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묘사의 어느 양태에서는 어떤 표현된 내용에 더 무게가 주어지고 다른 것들은 전적으로 무시된다. 로코코 미술의 경우 쾌활과 조화의 표현이 지배적이며 비극과 고통의 표현은 거의 배제된다. 묘사의 다른 양태에서는 재현되고 예시되고 표현되는 내용의 상호관계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중세 미술에서 예수가 재현된다면 종교적으로 적절한 속성만이 표현될 것이다.

곳만 이론에서 회화지칭은 맥락 의존적이다. 다른 기호체계들이 존재하고 같은 종류의 인물이나 음영의 연속이 다른 기호체계들에서 다른 사물들을 지칭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는 따른다. 한 기호체계에서 색채의 미묘한 단계적 차이는 모네(C. Monet) 경우처럼 빛의 변화하는 패턴을 지칭하고, 다른 체계에서 그 단계적 차이는 로트코(M. Rothko)처럼 극단적인 정서적 식별을 지칭한다. 로빈슨은 몬드리안(P. Mondrian)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가 부분적으로는 그의 전체 작품들 기호체계 내 그 역할 때문에 쾌활한 자유분방을 표현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작품들이 전형적으로 한결 더 형식적이고 엄밀한 것에 대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가정컨대 그 작품은 세베리니(Gino Severini)의 성숙한 양식의 회화 기호체계 내에서라면 차가운 초연을 표현할 것이다.<sup>20)</sup>

20) J. Robinson(2000), “Languages of Art at the Turn of the Century”, Symposium: The Legacy of Nelson Goodma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8, p. 216.

굿맨은 형이상학적 근거로 본질에 회의적이거나와 예술의 본질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역동적이며 연속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확립된 규약과 확신을 유익하게 조롱한다. 예컨대 파운드 아트(found art)의 경우 맥락에 따라 예술로 기능을 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고 예술개념이 공허하거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는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본질주의 물음 대신에 ‘언제 예술인가?’ 물음을 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적인 것의 다섯 개 징후가 설정된다. 즉 체계 내 통사론적 조밀(density), 의미론적 조밀, 상대적인 충만, 예시, 그리고 복합적이고 간접적인 지칭이다. 병환의 징후처럼 이것들은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나 예술에서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LA: 252-255).

이 징후들의 성격상 작품에서 간파하게 되는 것은 끝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호 자체에 끊임없이 주목함으로써 다른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도 얻게 된다. “추상화 전시회에서 한 시간 쯤 보내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기하학적 조각들로 형세를 취하거나 원형으로 소용돌이치거나 질감의 아라베스크로 짜이는 경향이 있고, 흑백으로 예리해지거나 새로운 색채의 조화와 부조화로 진동하는 경향이 있다”(WW: 105).

과거 형식주의 입장에서 재현 같은 회화 내용은 회화 감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예술 기호체계에 대한 굿맨의 작업은 회화의 인지기능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시사한다. 그것은 회화 내용의 분석이 회화의 감상과 이해에 중심적임을 보인다. 지칭이라는 회화의 본질을 고려할 때, 회화 내용의 해석은 회화가 그 자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외부적인 부가물이 아니다. 오히려 회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것이 지칭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회화는 재현과 표현 요소와 함께 형식구조라는 지칭체로 말미암아 인지적 내용을 담지하게 된다.

## 3.2. 의미론적 양식개념

굿맨에게 예술양식 역시 지칭과 관련되며 세계를 제작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그는 작품 생산의 시공 견지에서 흔히 정의되는 양식의 ‘역사적’ 개념으로부터 작품의 내용 견지에서 정의되는 ‘의미론적’ 양식 개념으로 이행한다. 먼저 소재 차이마저 양식 차이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르네상스 전투에 관해 쓰는 것과 르네상스 예술에 관해 쓰는 것은 르네상스에 관해 쓰는 다른 “방식들”이다(WW: 26).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양식으로 간주해온 것과 소재나 내용의 대조를 포기한다.

다음으로 양식은 지칭기호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의미를 기호화해야 한다. 재현의 대상과 방식을 분리하지 않는 굿맨에게 양식은 한갓 장식적 덮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형식이 예시된다고 했거니와 이제 흔히 양식과 연결되어온 작품의 형식은 예시되며 양식속성이 된다. 회화 내 선들과 색채들의 조직 같은 어떤 형식적, 구조적 특징이 의미론적 내용을 구성하며 양식기술의 성분이 되는 것이다. 양식 논의에서 의미론적 성분을 간과해온 것은 유지할 수 없는 형식/내용 이분법에 기초한다.<sup>21)</sup> 나아가 이를테면 냉소적인 묘사와 감상적인 묘사의 차이가 양식적이듯이 작품이 표현하는 것 역시 종종 그 양식의 주요한 요소다.

소재는 통상 양식에 속하지 않았지만 굿맨에 이르러 양식국면이 되며, 예시된 속성과 표현된 속성에 대한 지칭도 양식기술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제 무엇/어떻게 혹은 소재/양식 이분법과 함께 무엇인 것/무엇을 행하는 것 혹은 내재적/외재적 이분법도 거부된다. 이를테면 회화는 푸르며 푸름을 예시한다. 곧 지칭한다. 예시와 표현(은유적 예시)

21) G. Hellman(1977), “Symbol Systems and Artistic Style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5, pp. 284-289에서 굿맨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식의 의미론적 성분이 상세하게 논의된다.



은 무엇인 것이며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속성을 소유하며 동시에 지칭한다. 회화 물감의 화학속성과 같은 것은 양식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의미론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식특징은 작품이 재현하는 것, 예시하는 것, 혹은 표현하는 것의 특징이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의 특징은 또한 지칭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 된다. 먼저 표현되는 속성인 정서는 재현되는 방식의 한 국면이다. 한 예로 만테냐(Andrea Mantegna)와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의 예수를 묘사한 두 회화처럼 표현되는 것의 차이는 같은 소재를 묘사하는 다른 방식들이다. 다음으로 재현되는 것의 특징은 재현되거나 표현되는 방식이 된다. 예컨대 베르메르(Jan Vermeer)와 드 힘(de Heem)과 반테어 헤이든(van der Heyden)이 선정한 다른 소재들은 17세기 홀란드에서 삶을 묘사하는 다른 방식들이자 그 가정적 특성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들이다. 또한 어느 형식구조는 다른 소재들의 회화들에서 예시되며, 그러면 한 소재의 특징은 어느 형식을 예시하는 방식으로서 간주된다(WW: 32-33).<sup>22)</sup>

회화가 양식특징으로 재현하고 예시하고 표현하는 인지적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회화가 어느 유형인가에 달려 있다. 상세한 재현적 정확성으로부터 사회적 관계, 지각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 정서나 환상 등에 이르기까지 회화에서 발견되는 통찰이나 인지적 내용의 단계들은 다양하다. 예컨대 신고전주의자인 다비드(J.-L. David)는 마라의 죽음에서 18세기 부르주아 투쟁의 위엄과 영웅주의를 시사한다. 초현실주의 양식은 충격과 농담과 부조리로 가득 찬 꿈의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기호체계, 곧 어느 회화가 거기에 속하며 그림으로써 그 회화를 올바른 예술적

22) 이 자리에서 양식 논의도 ‘지칭’ 국면으로 접근하여 양식의 기호(의미) 기능을 다루었다. 그러나 굿맨의 견해에서 양식은 서명(signature, 확인) 기능도 겸한다. 후자 기능 역시 세계나 작품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황유경 (1999), 「Goodman에 있어서 예술적 양식의 개념」, 『美學』 27집, 한국미학회, 143-165쪽 참조.

맥락에 두는 그런 기호체계를 확인함으로써 그 회화 안에서 어떤 종류의 통찰을 찾아야 하는지 발견하게 된다. 회화의 인지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4. 맺음말

굿맨에게 우리가 단어나 회화 같은 기호로 만드는 세계에 대한 판본은 곧 세계 자체를 만든다. 쉐플러는 이런 세계제작 발상에 반대한다. 세계 자체는 우리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필자는 방법상 자연종과 인공종의 구분, 그리고 규약과 사실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굿맨의 논변을 근거로 세계가 제작된다고 보는 굿맨을 옹호하였다. 속성이 이론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규약과 사실 혹은 도식과 내용의 구분이 확고하지 않고 가변적이어서, 내용이나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식이나 판본의 선정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로 간주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굿맨 철학에서 회화의 기호기능은 곧 세계제작에 참여하는 일이다. 특히 그가 고안한 예시지칭은 과학에서도 중요하거니와 이 지칭으로 말미암아 예술의미론은 재현이나 서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화가 무엇에 ‘관한’ 것일 때, 그 무엇이란 회화가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시하거나 표현하는 속성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의 미니멀리즘 작품은 정보 면에서 매우 금욕적이지만 ‘활력성’ 같은 의미를 예시로 전달하는 것이다. 굿맨에게 양식 역시 지칭의 문제로서 그 발생은 곧 회화가 세계를 제작하는 어떤 방식의 조짐이다. 양식의 식별은 작품과 작품이 제시하는 세계들의 이해의 필수적인 국면이다.

필자의 관심사인 예술의 인지적 성격은 자신의 철학 지평에 과학과 동

등하게 예술을 자리매김하는 굿맨의 독창적인 철학에 기대어 구명된다. 따라서 필자는 그 철학의 근간인 세계제작 논변을 나름대로 옹호하고자 하였고, 이어서 회화의 경우로 그 성격의 구체적인 면면을 고려해 보았다.

## 참고문헌

- 황유경(1999), 「Goodman에 있어서 예술적 양식의 개념」, 『美學』 27, 한국미학회.  
\_\_\_\_\_(2005·2006), 「지식으로부터 이해로의 이행: 정서·예시·허구·은유의 인지적 기능 (I)·(II)」, 『美學』 42·45, 한국미학회.
- Elgin, Catherine(2001), “The Legacy of Nelson Goodma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2.
- Goodman, Nelson(1993), “On Some Worldly Worries”, *Synthese* 95, pp. 9-12(reprinted in P. McCormick, ed., *Starmaking*.  
\_\_\_\_\_(1996), “Comments,” in P. McCormick, ed., *Starmaking*.
- McCormick, Peter(1996), ed., *Starmaking : Realism, Anti-Realism, and Irrealism*, MIT Press.
- Robinson, Jenefer(1979), “Expressing the Way the World Is: Expression as Referenc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3.  
\_\_\_\_\_(2000), “Languages of Art at the Turn of the Century”, Symposium: The Legacy of Nelson Goodma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8.
- Scheffler, Israel(1980), “The Wonderful Worlds of Goodman”, *Synthese* 45.  
\_\_\_\_\_(1996a), “Reply to Goodman,” reprinted in P. McCormick ed., *Starmaking*.  
\_\_\_\_\_(1996b), “Worldmaking: Why Worry”, in P. McCormick, ed., *Starmaking*.  
\_\_\_\_\_(1997), “Some Responses to Goodman’s Comments in Starmaking”, *Philosophia Scientiae* 2.  
\_\_\_\_\_(2000), “A Plea for Plurealism”, *Erkenntnis* 52.  
\_\_\_\_\_(2001), “My Quarrels with Nelson Goodma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2.  
\_\_\_\_\_(2009), *Worlds of Truth: A Philosophical Knowledge*, Oxford: Wiley-Black.
- Schwartz, Robert(2000), “Starting from Scratch: Making Worlds”, *Erkenntnis* 52.
- Siegel, Harvey(1984). “Relativism, Realism, and Rightness: Notes on Goodmanian Worldmaking”, *Journal of Thought* 19.

원고 접수일 2011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1년 1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4일

ABSTRACT

---

A Defense of Goodman's Worldmaking  
- Focusing on the Goodman-Scheffler Debate -

Hwang, Yu Kyung

Nelson Goodman contends that we make worlds by making world-versions. Though Israel Scheffler approves of Goodman's epistemological pluralism, he cannot accept Goodman's thesis of worldmaking. He disagrees with Goodman in that he cannot accept the idea that we make the things to which our versions refer. For Goodman, we make a star by putting its parts together and marking off its boundaries. Scheffler argues that just because we make words, it does not follow that we make a star our words describe; it exists independent of us.

I try to make plausible the idea of worldmaking. Following Goodman's rejec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kinds and the convention/fact dualism, I think it may be crucial in arguing for the contention that there is no independent world with fixed properties. I believe that our choice of convention or version creates or shapes content or the things of a world.

For Goodman, art also contributes to the making of worlds. I discuss it in case of painting. I examine Goodman's view of pictorial reference

to show how paintings can have cognitive content. Here, it is remarkable that exemplification is a mode of reference whereby a painting refers to its own features. I also discuss that the discrimination of style is an integral aspect to get the insight paintings present.